

증권사, 발행어음 속속 신청... 심사기준 불확실성 '변수'

관련 시행령·개정안 입법 지연
사전자료 위주로 신청서 제출
당국 "인가 수 제한 없이 심사"

전산장애·제재 가능성 등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지만, 증권사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를 따내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청 첫 날인 1일부터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이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메리츠·하나·신한투자증권도 이달 중 신청할 계획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어음을 발행해 기업 금융,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까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4곳만이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규제 전환기이자 인가 심사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진다. 금융



여의도 증권가 전경

/손진영 기자 son@

당국은 지난해 '증권업 IB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제도 개편을 예고했고, 내년 부터는 지정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발행어음이나 IMA 진입 전에 2년 이상의 종합

투자사업자(종투사) 실적이 요구되며, 대주주 제재 이력 등 결격요건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 아래 인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요건으로 접근 가능한 올해 안에 인가를 받아야 중장기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며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경우 최소 2년은 발행어음 시장에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변화만큼이나 심사 실무의 불확실성도 크다. 금융위는 3분기 접수를 예고했지만, 정작 관련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자료' 위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가 이뤄져야 심사기준도 구체화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제출은 하되 어떻게 판단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증권사별 리스크 이슈도 인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에 첫 타자로 나선 키움증권은 HTS·MTS 전산장애가 올해만 세 차례 반복돼 금감원의 수시검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CFD 관련 제재 리스크, 국고채 담합 조사 등 겹쳐 있는 규제 이슈가 심

사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실제 금감원은 전산 오류가 10분 이상 지속될 경우 전자금융사고로 간주하고, 반복된 장애에 대해선 경고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금융위가 인가 심사에서 '시스템 안정성'과 '신뢰도'를 중요 요건으로 판단하는 만큼, 키움증권의 인가 여부는 쉽지 않은 판단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신청사인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인가를 추진했다가 대주주 리스크와 '유령주식 배당' 사태로 중단한 전례가 있다. 이후 7년 만에 재도전에 나섰고, 최근 TF를 꾸려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2~3개월의 심사 기간을 거쳐 증권위와 금융위 의결을 통해 인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인가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적격 여부에 따라 순차 심사에 예정이고 시행령 개정도 늦지 않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5년 활동 보고서' 발간

수입 57.5억... 지출 96% '장학·복지사업' 공익 집행

PDF·e-book·영상 형태 제작
18년간 7444명 장학생 해외 파견

최근 기업들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화두(話頭)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글로벌 환경변화와 갈수록 커져가는 계층 격차로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책임, 고객 동맹, 정직한 회사'라는 경영 철학을 가진 미래에셋그룹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중심이 돼 일찍이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창업주 박현주 회장 역시 "사람을 키우고 기회를 주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지난해 주요 활동과 재무 현황을 담은 '2025년 활동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재단은 매년 연간 사업 결과와 기부금 사용 내역 등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발간 중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해



미래에셋박현주재단 2025년 활동보고서.

/미래에셋증권

주요 활동, 재단 설립 후 추진한 프로그램 성과, 재무 상태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 프로그램인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2007년 시작 이후 18년간 7444명의 장학생을 50개국에 파견했다. 미국(2374명), 독일(1005명), 중국(598명), 프랑스(450명), 영국(323명) 등이 주요 파견국이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학생 간 네트워킹을 위한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됐다. 현재까지 1975명이 참여했고, 이 중 약 300명은 '글로벌 특과원'으로 선정돼 파견국 현지 소식을 전했다. 'Sharing Day', 'MEET-UP Project' 등도 진행돼 봉사활동과 혁신 분야 전문가 특강, 멘토링 등을 통해 장학생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청소년 교육 복지 사업도 이어졌다. '글로벌 문화체험단'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 심천의 혁신기업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비전 프로젝트', '금융 자립 프로젝트' 등을 통해 창의성과 진로 역량 향상을 도왔다.

2024년 재단의 총 수입은 약 57억 5000만 원, 총 지출은 약 54억 8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96%가 장학 및 복지사업 등 공익 목적에 집행됐다. 특히 기부금은 미래에셋 계열사의 매칭그랜트를 통해 개인 기부금의 2배 규모로 조성돼 목적사업에 활용됐다.

재단 관계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보고서는 PDF, e-book뿐 아니라 영상 형태로도 제작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사장(왼쪽)과 캐피탈그룹 마이크 기틀린 CEO가 전략적 협의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한투증권-캐피탈그룹 금융상품 공급 '맞손'

하반기 인컴형 상품 출시 추진

한국투자증권이 글로벌 운용사 캐피탈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하반기 공모 인컴형 상품 출시와 글로벌 자산 공급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국내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일 마이크 기틀린(Mike Gitlin) 캐피탈그룹 CEO 방한에 맞춰 국내 금융상품 공급 확대 및 협업 방안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투자 트렌드, 하반기 상품 출시 방향, 협업 시너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마이크 기틀린 CEO는 이날 협회에서 해외 협업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투자자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컴형 상품 출시를 위해 실무 차원의 계획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한국투자증권은 골드만삭스, 칼라일그룹, 만그룹, 얼라이언스스타인 등과 전략적 제휴에 이어 캐피탈그룹까지 협업 파트너로 확보하게 되며, 우량 글로벌 자산을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허정윤 기자

증권사, 해외지점 확대... 성장 모멘텀 높인다

금융상품 발굴 등 업무영역 확장

증권사들이 해외에서 먹거리 찾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해외금융상품 발굴 등 업무영역도 넓히고 현지 증권사 인수와 합작법인 설립 등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도 펼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지점은 총 70개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1개 대비 9개 지점이 늘어났다.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한 곳은 미래

에셋증권이다. 최근 1년 동안 해외지점을 7곳 늘렸다. 덕분에 해외 전초기지는 22곳으로 늘었다. 미래에셋증권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는 곳은 인도시장이다. 2017년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인도에 진출했으며, 지난해 현지 증권사를 인수를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현지화 공략을 펼치고 있다. 하나증권은 기존에 전무했던 해외지점을 2곳 늘렸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분기 2곳에서 올해 3곳으로 해외 거점을 확대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인도네

시아 현지 증권사인 칩타다나증권을 인수한 데 이어, 올해는 칩타다나자산운용사 인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 해외법인 성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해외 진출을 위해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NH투자증권은 뉴욕,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 등 6개국에 총 6곳의 현지법인과 2곳의 현지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해

외법인·사무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해외시장에 많이 나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시장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면서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고, 보다 넓은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해외 거점 확대에 나선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 15곳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2억 7220만 달러(약 4002억원)였다. 전년 1억 650만 달러 대비 155.5%(1억 650만 달러) 증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